



Analyst 유승우 · 02-3773-9180 · yswbest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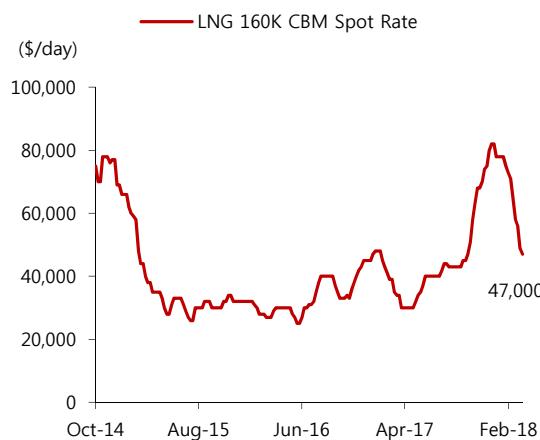
# Issue Comment

- ✓ LNG 탱커 스팟 용선료는 \$47,000/day 까지 자차 하락함
- ✓ LNG 탱커 선가는 174,000cbm 기준 1.8 억불까지 하락함
- ✓ 공급 과잉이 해소된 것이 아니기에 최근의 발주는 투기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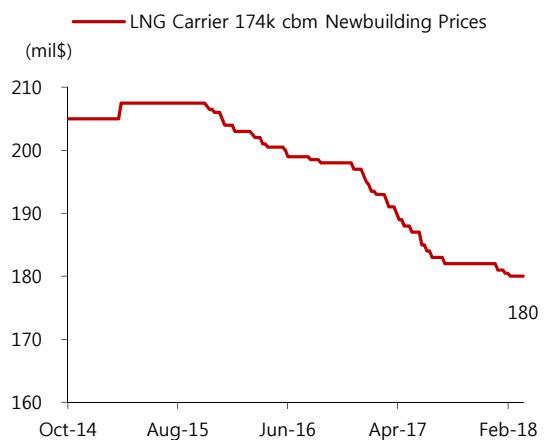
## 현재의 LNG 탱커 발주가 투기 발주인 두 번째 이유: 선가

지난 주 코멘트에서 LNG 탱커 용선료가 \$49,000/day 까지 하락하며 중국 동절기 가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밝혔다. 그리고 지난 3월 23 일자로 용선료는 재차 하락해 \$47,000/day 을 기록하며 LNG 탱커 발주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그뿐 아니라 LNG 탱커는 선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. 이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.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2017년 10월 11일 “Cyclical Bulletin-Theme: 후판은 오르되, 선가는 쉽지 않다”에서 선복 과 임으로 인해 용선료 하락 등 발주여건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선박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에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선가 인상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. 배가 너무 많은 나머지 발주처는 배가 필요 없고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선가를 올릴 수 없는 구간인 것이다. 선박이 필요하다면 같은 용선료 수준을 보이는 2014년 10월과 2018년 1월처럼 선가도 2014년 10월의 2 억불 수준을 보였어야 한다. 그러나 174,000cbm 규모의 LNG 탱커 선가는 1.8 억불 수준으로 하락해있다. 따라서 최근의 LNG 탱커 발주량은 다소 투기적인 성격을 지닌 물량으로 판단된다.

LNG 탱커 용선료는 지난 주 또 하락함



LNG 탱커는 선가도 지속 하락중임

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SK 증권

자료 : Clarksons Research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